

1분기 카드 사용액 전국 7.4% 늘때 광주 3% 줄어

여행사·자동차임대업 41% 급감하고 백화점 매출 20% 늘어 전남은 1조9801억원, 2.1% 감소...29개 업종 중 14개 줄어

올해 1분기 전국 신용카드 결제액이 1년 전보다 7.4% 증가한 가운데 광주·전남은 카드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과 음식점 업종 카드매출은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감소를 겪었다.

9일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지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광주 3.0%·전남 2.1% 각각 감소했다.

1분기 광주 카드 결제액은 2조3106억원으로, 전년(2조3816억원)보다 3.0%(-710억원) 줄었다. 전남은 1조9801억원으로, 지난해(2조231억원)보다 2.1%(-430억원) 감소했다.

전국 1분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지난해 130조5159억원에서 올해 140조1612억원으로 7.4%

(9조6453억원) 증가했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6개 지역은 전년보다 카드소비가 늘었고, 광주·전남을 포함한 10곳은 줄었다.

경기지역 카드 이용액은 11.6%(2조9746억원) 늘어난 28조5380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11.0%), 대구(7.9%), 제주(6.4%), 경북(3.5%), 부산(2.4%) 등 6개 시·도는 카드매출이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여행, 음식점, 화장품 업종의 타격이 컸다.

광주 여행사·자동차임대업 1분기 카드 매출은 지난해 17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41.2%(-7억원) 급감했다. 음식점 매출은 올 1분기 2557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0.9%(-676억원) 줄었다.

이어 가구 업종이 17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9.6% 감소했고,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화장품 매출은 17.2%(-30억원) 줄어든 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료(-8.1%)와 복식잡화(-7.5%), 건강보조식품(-6.7%), 숙박(-6.5%), 의복·직물(-3.0%), 일반 병의원·기타 의료기관(-3.0%), 스포츠·오락·여가(-1.9%), 종합병원(-1.1%) 등 조사를 벌인 29개 업종 가운데 16개가 매출 감소를 면치 못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효과로 일부 업종 매출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신품 매출은 2.6% 줄었지만 자동차 부품 및 정비(5.8%)와 대중교통(28.6%), 기타운승수단(42.1%) 매출은 전년보다 늘었다.

광주 백화점 카드매출은 지난해 1077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20.2%(218억원) 뛰었고, 일반 식품(7.8%), 편의점(7.5%), 대형마트·유통전문점(0.2%) 등 도소매 관련 업종도 증가 추세다.

전남은 29개 업종 가운데 14개 카드 매출이 전

년보다 줄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멈춘 영향으로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 들어 '0원'로 떨어졌다.

건강보조식품(-30.8%)과 대중교통(-28.6%), 금융·보험(-25.0%), 화장품(-18.0%), 여행사·자동차임대(-10.0%) 등의 감소폭이 컸다. 음식점 카드매출은 11.8%(-422억원) 줄어든 3169억원이었지만, 숙박업 매출은 197억원에서 209억원으로 6.1%(12억원) 증가했다.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해 흐름세를 보였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카드매출은 올 들어 다시 감소세를 맞았다. 올 1분기 온라인 부문 카드매출은 광주 50억원·전남 31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8.5%(-20억원), 46.6%(-27억원) 줄었다.

한은 '지역별·업종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가맹점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하며, 해외사용분·현금서비스·법인 이용금액은 제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통업계에 부는 친환경 바람 롯데마트 플라스틱 용기 없애고 이마트는 재생 플라스틱 늘리고

친환경 상품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롯데마트가 이번에는 성경식품과 협업해 플라스틱 용기를 없앤 조미김 상품을 9일 출시했다.

롯데마트가 선보인 '환경을 생각한 에코 패키지 트레이리스(Eco Package Tray-less) 김'은 안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포장 상자도 100% 사탕수수 종이인 '친환경 열스팩'과 공기름 잉크를 사용해 만들었다.

롯데마트는 이상품을 시작으로 마트 내 모든 조미김 상품을 플라스틱 용기가 없는 상품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마트는 이달부터 과일·채소상품에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마트가 도입하는 재생 플라스틱 용기는 기존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하던 신규 페트(PET)와 페플라 스틱을 원료로 한 재생 페트를 섞어서 만든 것이다.

앞서 이마트는 채소 상품 중 27%에 이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다.

이마트는 이번 재생 플라스틱 용기 전환을 통해 연간 1000t 이상의 플라스틱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이마트의 과일·채소 포장에 사용한 플라스틱 팩 사용량은 2101t에 달했다.

이마트는 이와 함께 토마토를 시작으로 모든 플라스틱 포장 상품에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용이한 '수(水) 분리 이지필(Easy-peel)' 라벨 스티커를 사용한다.

상품 안내 등이 적힌 이 라벨 스티커는 기존 라벨 스티커보다 쉽게 떼어지며 흑사라도 남는 부분도 물이 묻으면 제거돼 재활용센터 내 세척 과정 중 자동으로 분리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경제지주 전남 양파 1200t 매입 전국 하나로마트서 20% 할인 판매

농협경제지주가 전남 양파 1200t을 사들여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0-23일 2주일 동안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전남 양파 1200t을 20% 할인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할인전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할인은 경제지주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서는 업소용 양파 15kg과 소매용 3kg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농협은 조생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지역농 협이 수매한 상품 출하를 늦춰왔다. 양파 주산지 무안을 포함한 전남 양파는 지난달 7000t이 격리조치됐다.

장철훈 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양파 소비촉진운동을 벌여 저렴한 가격으로 국산양파를 판매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내년에도 맛있고 안전한 국산양파를 소비자의 식단에 올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하루에 양파 한 개씩 먹는 착한 소비를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들어 가전제품 매출 더 늘었다

광주 이마트 1~5월 두자릿수 증가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제품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다.

9일 광주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5월 '피부미용 가전' '식기·음식물 처리기' '의류 관리기' 등 가전 매출이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LED 조명으로 피부를 가꾸는 피부미용가전 매출은 전년보다 82.7% 증가했다.

식기세척기와 음식물 처리기는 54.3% 늘었으며, 의류관리기는 41.3% 증가했다.

이마트 측은 집에서 삼시세끼 챙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을 줄이기 위한 가전 수요가 늘어났다고 풀이했다.

집에서도 커피전문점 수준의 차 한 잔을 즐기자는 경향이 굳어지면서 에스프레소 제조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올랐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원두를 분쇄하고 커피를 추출하는 등 모든 제조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진다. 만들 수 있는 커피는 에스프레소부터 카푸치노, 라떼 마키아도, 플랫 화이트 등 30가지가 넘는다.

이마트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1인 가구를 겨냥한 '혼족 주방가전'을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까지 20여 종으로 늘려 출시했다.

1.2l 용량 '혼족 마카롱 밥솥'과 '혼족 미니화로' 등이 대표적이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가전 트렌드 역시 그에 맞게 변화중"이라며 "가사노동 최소화를 위한 식기세척기, 음식물처리기, 의류관리기 등의 제품들이 필수가전 대열에 오르며 이를 찾는 고객들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새콤달콤한 자두 맛 보세요 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지하1층 과일매장에서 '여름 대표 과일' 자두를 선보이고 있다.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가 제철인 '대석조생' 자두는 비타민A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롯데쇼핑 제공>

최대 50%까지 유통업체 여름 의류 할인전

대형 유통매장들이 본격적으로 여름 의류 할인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달 말까지 6층 '아이디' 매장에서 올 신상 티셔츠와 반바지를 사면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매장은 인기 웹툰 작가인 이상규씨와 협업한 '호랑이형님' 반팔 티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미니 크로스백'과 '무게 티셔츠' 등도 기획해 출시했다.

광주·전남 6곳을 포함한 이마트 모든 점포는 10일부터 23일까지 자체 의류 브랜드 '데이즈' 린넨 의류 30% 할인전을 펼친다.

'데이즈 린넨 대전' 대표 상품으로는 린넨 티셔츠(9030원), 린넨 원피스(2만9930원), 남성 린넨 팬츠 전품목(1만3930원-2만7930원) 등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은 오는 13일까지 '데이즈 워크'를 열고 여름 맞이 데이즈 남·여성 린넨 의류 전품목과 아동 의류 행사상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데이즈 남·여 아동 속옷의 경우 2매 이상 구매 때 반값에 살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투자하실 분! 모십니다

- ▶ 경기/수도권 지역
- ▶ 급매물/경매 입찰·낙찰 특수물건
- ▶ 투자금 - 3억 이상
- ▶ 수익금 - 월1부 법적보장
- ▶ 원금 - 법적보장(담보1순위 또는 충분한 담보제공)

문의. 010-3605-5000